

학교법인 오산학원(창문여자중고등학교) 이전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

2007. 9. 11

도시관리위원회

1. 경 과

- 청 원 자 : 서울시 강북구 미아4동 8-16  
학교법인 오산학원 이명자외 13,453명
- 소개 의원 : 김기성의원(보건사회위원회)
- 접수 일자 : 2007. 4. 18 (24번)
- 회부 일자 : 2007. 4. 20
- 상정 일자
  - 제32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(2007. 7. 3) 상정, 보류
  - 제16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(2007. 9. 5) 상정, 의결

2. 청원요지

- 강북구 미아4동 8-14번지에 소재한 학교법인 오산학원인 창문여자중고등학교는 중학교 18학급(660명), 고등학교 45학급(1600명)이 있는 학교로서 1972년에 설립하여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며, 학교부지는 5,400평(14,003㎡)으로 11개 시설이 밀집하여 공간이 협소한 실정이며, 현재 강북구의 중·고등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뉴타운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향후 5년간 40% 이상의 학생수 증가가 예측됨.
- 학교법인 오산학원 소유부지인 강북구 번동 산 28번지 일원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서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니 본 부지에 창문여자중고등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공원을 해제 요망.

3.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

- 학교법인 오산학원 창문여자중·고등학교의 현재 면적은 약 5,400평(14,003㎡)으로 학교시설 11개동이 밀집하여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하며, 학교시설은 35년이 경과함으로써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고, 주변 환경은 뉴타운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소음으로 학교 수업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고,
- 학교이전을 통한 학교의 변화와 발전은 본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'강·남북 교육 균형발전'이라는 서울시정 공약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모범적이고 실천적인 답이 될 것이며, 강북지역민의 교육적 민원에 대한 명분 있는 해소책으로,
- 학교법인 오산학원 소유인 강북구 번동 산 28번지 약 24,000평은 용도지역상 제1종일반주거지역, 도시계획시설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창문여자중고 이전과 자립형 사립고 및 특성화고 설립부지로 이용함으로써 '강·남북 교육 균형발전'을 이루고, 강북지역민의 교육적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본 청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함.

4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: 양재대)

- 본 청원은 강북구 미아4동 8-14번지에 소재한 학교법인 오산학원인 창문여자중고등학교의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공간이 협소한 실정이며, 향후의 학생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동 법인 소유부지인 강북구 번동 산 28번지일대(제1종일반주거지역, 공원)에 창문여자중고등학교를 이전하고 자립형 사립고 및 특성화고 부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원의 해제를 요청하는 사안임.
- 창문여자중고등학교는 학교부지 14,003㎡(4,236평)이고, 창문여자중학교 18학급 660명(1972년 개교), 창문여고등학교 45학급 1,600명(1975년 개교)으로 도시계획상으로는 제2종(일부 제3종)일반주거지역, 일반미관지구, 학교로 되어 있고 학교 설립후 35년이

경과하여 건물이 노후가 되어 있고, 공간이 협소한 실정임.

- 이전에 정지는 면적이 31,981㎡(9,674평)이고, 도시계획상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, 일반미관지구, 공원(오동근린공원) 지역이며, 대체공원지는 성북구 종암동 산 2-11외 2필지로 면적은 37,718㎡(11,410평)이고, 도시계획상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, 자연경관지구임.
-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원해제가 불가피한 사항인데, 공원해제는 생활권 녹지 확충이라는 서울시 공원정책과 부합되지 않고 또한 본 부지는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공원해제가 어렵다는 것이 집행부서의 의견임.
- 그러나 본 토지에 결정되어 있는 오동근린공원은 1977.4.14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결정된 이래로
  - 30년 동안 미집행된 시설이고, 서울시 도시공원정비기준에 의거 “학교 등 공공시설의 입지상 부득이한 경우”는 공원용지의 해제도 가능하다는 사항, 공원해제에 따른 대체공원(성북구 종암동 산2-11외 1필지) 부지를 제시하고 있는 점, 오산학원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장애의 학생수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, 자립형 사립고 및 특성화고 유치를 통한 지역간 교육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, 공원을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 학교를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청원인이 오동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는 대신에 성북구 종암동 산 2-11 외 2필지(37,718㎡)를 대체공원으로 확보한다고 하고 있는데, 대체공원 부지가 적합한지?
  - ⇒ (국장 답변) 대체공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지는 현재 공원은 아니지만 실제 공원과 같이 이용되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로서 대체공원으로서의 실익이 없음.
- 현 학교부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불허한다는 조건을 부여할 경우 청원인이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, 규정상 현 학교부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불허할 수 있는지?
  - ⇒ (국장 답변) 현재 창문여자중고등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이므로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로 공동주택을 불허할 수 있음.

6. 토론 요지

- 공원 보전과 교육환경 개선의 문제가 상충

7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1. 의견서 : 별첨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의 건 서

- 청 원 명 : 학교법인 오산학원(창문여자중고등학교) 이전에 관한 청원
- 처리하여야 할 기관 : 서울특별시 (도시계획국장)
- 채택 의견
  - 강북구 미아4동 8-16번지에 소재한 창문여자중고등학교는 중학교 18학급 660명, 고등학교 45학급 1,600명으로 학교 설립후 35년이 경과하여 건물이 노후되고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어 신축(증축)할 필요가 있으나, 현 학교부지의 협소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, 인근에 있는 오산학원 소유의 땅인 강북구 번동 산28번지 일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본 청원과 관련,
  -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을 해제하여 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 공원정책과 다소 상충하는 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, 백년대계(百年大計)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, 현 학교부지에 공동주택을 불허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청원인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공원부지의 실효성 확보 및 유관부서인 교육청·푸른도시국과 긴밀한 협의조정을 전제로 동 사안의 긍정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채택하였음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